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가운고등학교

더닝 포인트 (?)

1-3 B. 김영돈

아침에 학교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고 써내라고 했지만, 나는 바로 5분만에 써서
 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장래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꿈은 비록이나 유럽에 가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직업으로는 사진작가와 장도에
 구애받지 않는 IT 계열 직업이 있지만, 사진작가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거 같고 IT 계열에는 관심이 없어서
 바깥한 직업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의 학원 수강 신청을
 하러 한미강 학원에 갔는데, 어찌다보니 나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나는 사실대로 나의 장래 희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자 항공관제사를 추천해줬다. 나는 그냥 즐겨들었지만
 야자시간 때 고민을 해 봤더니 항공관제사는 어디까지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휴대폰으로 찾아봤는데
 나를 흥미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더 알아보니 항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서대학교라는
 충청도에 있는 학교가 눈에 들어왔다.
 한서대학교를 들어가려면 내신이 1.7~1.8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한지 두달 정도 밖에 안되어서 외화반
 하면 확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항공 관제사라는 장래희망이 나의 꿈은 바다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비록과 배워야 할 위해 항공관제사라는 직업을 지려고 한다.
 이즈 인해 나의 장래희망, 목표가 생기게되면 훗날 미래에서 돌아보면
 더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